[성명]

대구대학교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김상호 총장은 변명과 술책에 기대지 말고, 본인과 구성원에게 정직하게 임해야 한다.

이미 법인으로부터 징계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본 해임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도 제도적으로 적법하다는 결과가 확인된 현재에도 <총장의 임기단축에 대해>(10. 22.)를 게시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정된 본안소송의 재판(심리/10. 28.)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구성원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이 지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의 결과처럼 김상호 총장의 청구가 인용될지도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경영과 구성원들에게 입힌 회복할 수 없는 위기와 깊은 상처 및 고통은 씻기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적반하장을 그만두고, 책임질 일을 살피기 바란다.

총장의 임기 단축 및 시작 일정, 차기 총장 선임, 대학 개혁 및 경영회복 등의 문제는 김상호 총장이 거론할 일이 아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대학경영의 최대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급기야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주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반적 상식적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성원들의 고통과 심리적 상처를 살피기 바란다. 대구대학교 역사 앞에서 충심으로 성찰하기를 권한다.

대구대학교는 사회의 교육 공공재이자 구성원의 생존터이지, 사사로운 공간이 아니다.

김상호 총장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시피 대학 구성원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법인으로부터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는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는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대를 외면하고 법인까지 이르는 의사결정체계를 무시하고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려 한 무능·무지·무의지로 점철된 경영실패의 결과이다. 한편으로 대학 생존과 발전에 전념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간절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사회 제도적으로 입증되었고, 구성원으로부터 실질적·정서적으로도 해임된 상태가 분명하고, 조금이라도 애교심이 남았다면 대학본부 보직자와 함께 즉각 퇴진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2021. 10. 26.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